

문화재청 공고 제2019-24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8. 29.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경주부사선생안 (慶州府司先生案)	2종 2책 (구안: 불분권 1책, 신안: 불분권 1책)	국유 (국립경주박물관)
2	경상도영주제명기 (慶尙道營主題名記)	2종 2책 (당하제명기: 불분권 1책, 도선생안: 불분권 1책)	국유(국립경주박물관) 상주향교(상주박물관)
3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	1권 1첩	조**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 예고】

□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

- 명 칭 :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박물관)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성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 수 량 : 2종 2책(구안: 불분권 1책, 신안: 불분권 1책)
- 규 격 : 구안: 75.0×40.0cm, 신안: 75.0×40.0cm
- 판 종 : 필사본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철장(鐵裝)
- 조성연대 : 구안: 1523년(중종 18), 신안: 1741년(영조 17)
- 사 유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은 1523년(중종 18년) 경주부(慶州府)의 호장 김다경(金多慶)이 1361년(공민왕 10)에 작성된 고려시대 선생안 ‘경주사 수호장 행안(慶州司首戶長行案)’을 바탕으로 편찬한 구안(舊案)과 1741년(영조 17) 이정신(李廷臣) 등이 작성하여 1910년까지 경주부사를 역임한 인물들을 추록한 신안(新案)으로 이루어진 2종 2책의 선생안이다.

‘선생안(先生案)’은 해당 관청에서 근무한 역대 관리들의 직함과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다. 호장으로 부임한 연도와 업무를 맡은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해당 관청의 행정과 인사(人事), 인물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선생안은 지역을 달리해 여러 자료가 남아있으나, 이 ‘경주부사선생안’은 현존하는 선생안 중 제작시기가 가장 빠르고, 내용상 고려시대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완결성이 뛰어나며 장정 형식과 크기 등에서 단연 돋보이는 유물이다.

‘경주부사선생안’ 구안은 1281년(충렬왕 7) 호장 김성비(金成庇)부터 1713년에 임명된 최준위(崔浚渭)에 이르기까지 수록되었고, 신안은 1628년(인조 6)에 부임한 이인(李仁)에서 시작해 1910년 호장을 역임한 최병교(崔炳敎)를 마지막으로 추록하였다. 호장마다 직함과 이름 아래에 작은 글씨로 4대조(四代祖), 인신(印

信)을 받은 날자[掌印年月日], 대궐에 숙배(肅拜)한 사실[詣闕肅拜], 관복 하사[紅鞵下賜]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선생안은 고려 말~20세기 초에 이르는 약 630년 동안 경주에 부임한 호장들의 명단을 망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당대 정치·문화사적으로 위상이 높았던 명인(名人)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고 서문(序文)에는 이두(吏讀)가 혼용되어 있어 당대 인물사 및 국어사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구안은 고려시대 선생안 내용이 반영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선생안이라는 사실, 신안은 추록을 통해 구안을 보완해 주는 자료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아울러 조선왕실에 간행한 의궤(儀軌)에 버금가는 지질·규격·장황(粧潢)을 갖추고 있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찰사 명단인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와 비교해도 형태서지학적으로 손색이 없는 자료이다.

이처럼 ‘경주부사선생안’은 고려 말~조선시대 인사행정과 인물사 연구를 위한 역사적·학술적 의의가 매우 큰 자료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

- 명 칭 :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박물관), 상주향교(상주박물관)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경천로 684, 상주박물관
- 수 량 : 2종 2책

연번	표제명	수 량	비 고
1	당하제명기(棠下題名記)	불분권 1책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2	도선생안(道先生案)	불분권 1책	상주향교 소장 (상주박물관 위탁관리)

- 규 격 : 당하제명기: 84.0×40.0cm, 도선생안: 82.5×38.8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당하제명기: 철장(鐵裝), 도선생안: 선장(線裝)
- 조성연대 : 당하제명기: 1426년(세종 8), 도선생안: 1622년(광해군 14)

○ 사 유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는 고려~조선시대 경상도로 부임한 관찰사 명단을 수록한 2종 2책의 선생안으로, 각 1책씩 국립경주박물관과 상주향교 소장본(현 상주박물관에 위탁보관)으로 구성되었다.

‘경상도영주제명기’는 조선 초기의 문신인 하연(河演, 1376~1453)이 역대 경상도지역 관찰사의 명단을 1426년(세종 8) 처음 필사하여 제작한 이래 몇 차례의 추록(追錄)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 하연의 서문(序文)에 의하면, 자신이 관찰사로 부임한 이듬해(1426년) 역대 전임 경상도 관찰사의 명단을 확인하고 1078년부터 하연 본인이 부임하기 전인 1423년(세종 5)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관찰사의 명단을 새로 작성하였다고 한다. 이때 하연이 만든 ‘경상도영주제명기’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이며, 표제는 ‘당하제명기(棠下題名記)’로 되어 있다.

하연이 만든 ‘경상도영주제명기’는 이후 계속 추록되어 1718년(숙종 44) 관찰사로 부임한 이집(李堦)까지 기록되었다. 이렇듯 640년간 동일직명의 명단을 수록한 선생안이 전래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상주향교 소장본 ‘경상도영주제명기’는 하연이 제작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1622년(광해군 14) 김지남(金止男)이 제작한 것이다. 표제는 ‘도선생안(道先生案)’이다. 여기에는 1078년 부임한 이제원(李齊元)에서부터 1886년(고종 23)에 부임한 이호준(李鎬俊)에 이르기까지 추록되어 있어 8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역대 인물들의 현황을 알 수 있다. ‘상주목치(尙州牧置)’라는 기록을 통해 상주목에 보관했던 책이었음이 확인되며, 고려~조선시대에 걸친 역대 경상도 관찰사 명단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처럼 국립경주박물관 및 상주향교 소장 2종의 ‘경상도영주제명기’는 15세기 최초 제작 이후 19세기까지 추록되어 자료의 연속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관찰사 선생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고 내용 및 형태적으로도 가장 완형(完形)에 가깝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

- 명 칭 :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
- 소유자(관리자) : 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 1권 1첩
- 규 격 : 1장: 34.2×48.0cm, 난고(欄高): 22.2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절첩장(折帖裝)
- 조성연대 : 판각: 1244년(고려 고종 31), 인출: 고려 말~조선 초
- 사 유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은 대승(大乘)의 법계(法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밝힌 불교 경전으로, 인도의 승려 견혜(堅慧)가 지은 것을 중국 승려 제운반야(提雲般若) 등이 7세기 말에 번역한 재조본 대장경이다.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약칭으로 법계무차별론(法界無差別論), 별칭으로는 여래장론(如來藏論)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정 예고 대상인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1244년(고려 고종 31)에 판각이 이루어진 후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고려 말~조선 초에 인출(印出)된 것으로 판단된다.

1권 1첩으로 조성된 이 경전은 앞뒤 표지 사이에 권수제-저술·한역정보-본문-권미제-교감정보-간행정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광곽(廣郭) 등 형태서지학적(形態書誌學的) 사항, 본문의 구성 체계 및 각수(刻手)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란본 대장경을 교감(校勘)한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을 인출한 본임을 알 수 있다. 인출 시기는 본문 글자 끝의 세밀한 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져 있으며, 제침(題簽)의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을 통해 적어도 15세기 경에는 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인출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재조본 대장경 중 절첩(折帖) 형태로 전래된 희귀본이다. 거란본 대장경의 교감 등을 통해 제작한 해인사 대장경의 완전성과 함께 인출 당시의 먹과 종이, 인출본의 유통 및 장황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불교사 및 서지학적 의의가 큰 자료이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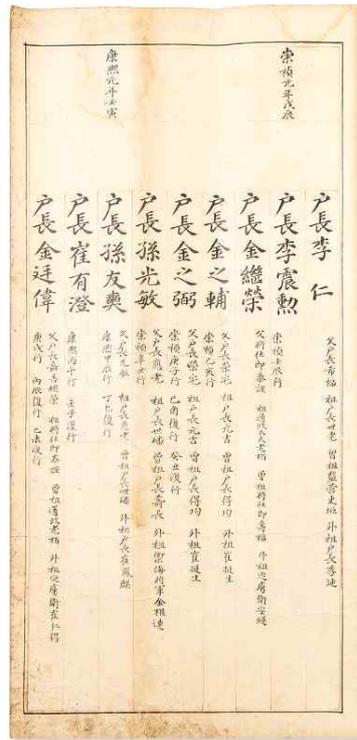
<경주부사선생안>(구안) 표지



<경주부사선생안>(구안) 내지



<경주부사선생안>(신안) 표지



<경주부사선생안>(신안) 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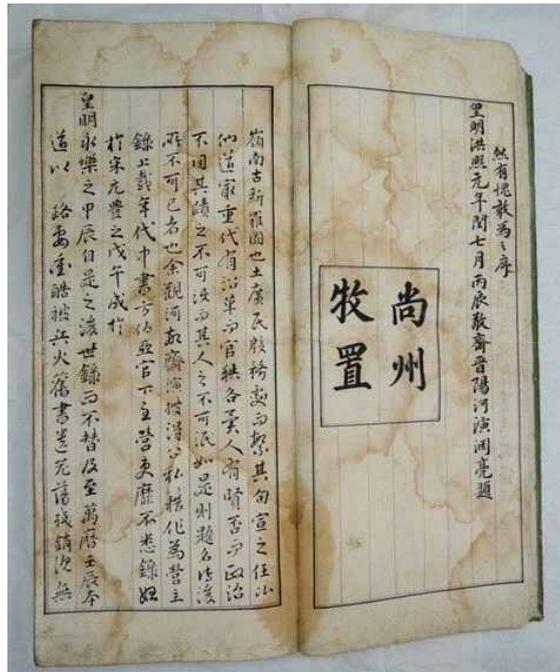
<경상도영주제명기> 표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표제: 당하제명기)



<경상도영주제명기> 내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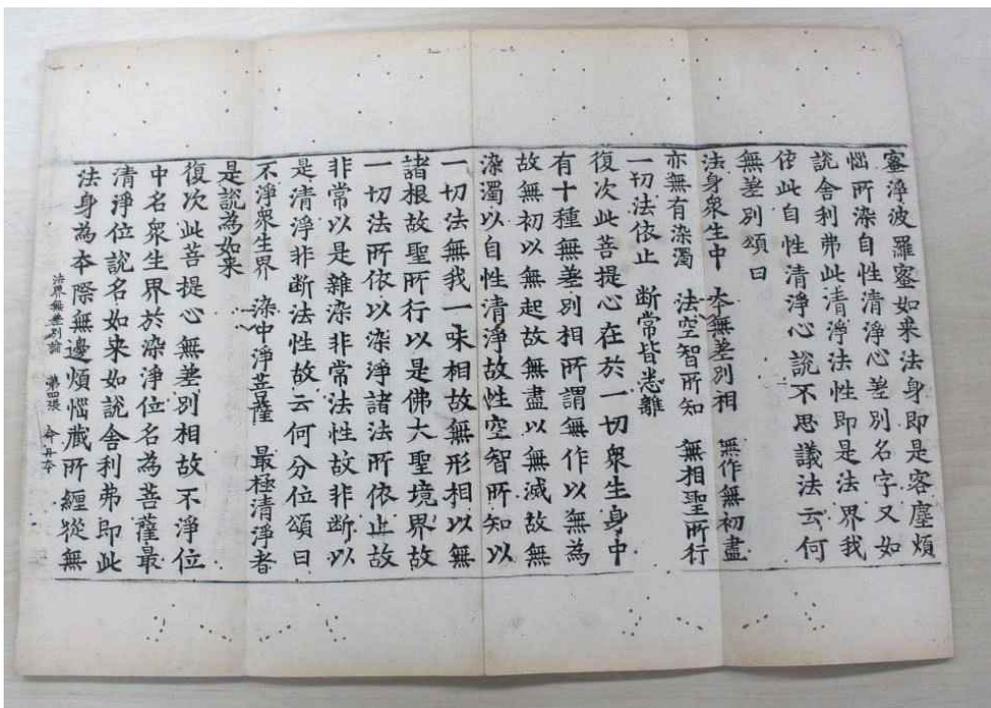
<경상도영주제명기> 표지
*상주향교 소장(표제: 도선생안)



<경상도영주제명기> 내지
*상주향교 소장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표지)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내지)